

파일명 구분	회 의 록	제 차	
		작 성 자	김형범
		회의일자	2015.12.04
회의 장소 및 주제	■회의장소 : 서울시립대 4층 전시실 ■회의주제 1.베니스 방문 2.“FAR GAME”주제에 대한 회의 3.“FAR GAME”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교수 안기현) 4.카탈로그 제작 및 전시 방법에 대한 회의 5.브레인 스토밍	참 석 자	
		서울시립대	교 수 김성홍
		한양대	교 수 안기현
		인천대	교 수 신은기
		에이코랩	소 장 정이삭
		서울시립대	정다은
		서울시립대	김형범
내 용	■베니스 방문과 “FAR GAME” 주제에 대한 회의 1.12일 저녁 베니스 도착예정. 13일에 김은정씨와 미팅 예정 2.김은정씨 베니스 비엔날레 경력 6년 되었음 -한국관 관리 업무, 전시 설치시 건축사 면허 필요 3.김은정씨 팀 구성 여부 -이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이용한 것으로 보임, 남편도 건축 관련 일을 함 4.계좌생성을 위해 베니스 비엔날레 추진단 만들어야 함(KSH) 5.이기옥 소장님과 미팅 있었음 - “FAR MAX” 언급이 있었음(KSH) 6.리차드 에노스와 메일 주고 받음(KSH) 7.Pepois.John 와 상의 예정(KSH) 8.지도 교수님과 대화(KSH) ①장소/②도시의 센터를 다루는 것이 중요/③중간건축을 다룰 것/④IT강국에 대한 내용 언급 ⑤용적률의 가치는 무엇인가? 잉여적 공간의 가치는 무엇인가?(관용/공유/연대)/ ⑥FAR GAME을 소문자로 쓰는 것을 고려(중의적인 의미/면 계임) 9.“FAR”를 먼저 접하면서 어쩌면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주변사람들과 얘기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아파트”이다. 사람들이 아파트를 미리 인지하고 있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글로벌로써 어떻게 정리 되어질지 고민 됨. 그리고 ‘아파트 게임(저 박해천)’이라는 책이 있음(AKH) 10.우리의 전략은 피해가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다.(KSH) 11.우리나라에서의 용적률은 돈의 의미가 크고 해외에서는 밀도, 도시환경의 의미를 지닌다.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음(SEG) 12.전시에서 용적률을 돈의 의미로만 본다면 전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됨 (AKH) 13.“FAT CITY” 14.‘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가능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고려(KSH) 15.용적률로써 공유가치 생산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됨(SEG) 16.‘Tolerance’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발코니 확장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잉여공간을 중산층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KSH) 17.아라베나의 사례(주거 100만호 설계)와 같이 접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KSH) 18.중산층은 밀도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었음(KSH) 19.집장사의 역할을 나쁘게만 보아야 할 것인가? 선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밀도를 30~40%를 채워 주었다. 20.홍대 앞 불법건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KSH) 21.가능하면 장하준 교수(경제)와 손낙구씨(부동산) 참여 여부 고려(KSH)		

■프리젠테이션 주요내용(교수 안기현)

- 1.도시를 만드는 힘은 “주거”이다.(경제 정치적으로 지어짐)
- 2.인허가 실적자료는 도시의 변화를 잘 보여줌
- 3.2005년 전국 주택 보급률 100% 넘음
- 4.“중상향” 일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됨
- 5.우리나라 아파트는 “생산라인”에 있었음
- 6.중간건축은 누구한테 새로운가?
- 7.용적률은 일반사람에게는 당연한 논리이고 우리에게는 숙제이다.
- 8.“확률 가족”(아르코 전시)
- 9.방문자들이 전시를 어떻게 관람해야하는가?/외국사람들이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10.‘공사중단 방치 된 건축물’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 11.아파트의 풍경은 외국사람에게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12.근린생활시설은 용도가 복합이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 됨
- 13.건축협정 - 용적률을 주는 협정(돈이 되니깐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 생각 됨)

- 14.“중상향”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키워드가 여러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풀
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 됨(CIS)

■카탈로그 제작 및 전시 방법에 대한 회의

- 1.제작을 “공간”에서 했으면 함(KSH)
- 2.공간에 맡기게 된다면 그래픽 팀이 새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됨(CIS)
- 3.공간이 정해지면 다음 회의부터 참여 요청(KSH)
- 4.심영규 기자가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음(CIS)
- 5.전시디자인은 코디네이터 없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오히려 리서
치를 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KSH)
- 6.본격적인 작업은 학교 방학 후 5층 3-509 Review Room에서 함. 3월 이후부터는 책, 소포트
웨어 등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 됨(KSH)
- 7.5월초 베니스에서 설치 할 때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KSH)
- 8.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3분)제작 고려(3분에 2~3천만원 소요 예상)
- 9.전시에서 아트는 진품이고 건축은 Introduction이라고 생각함(KSH)
- 10.아트보다는 오히려 건축에서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함.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것이 중요(CIS)
- 11.예술에서는 글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건축에서 글 보다는 건축의 근본적인 속성을 고려하
여 나타내는 것에 대한 생각 필요
- 12.건축에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됨.
- 13.건축이 보여주는 수단이 많지 않음(도면, 모형, 그래픽 등)
14. 서두호 작가 전시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전시라 생각되고 대중적임
(KSH,CIS)
- 15.서두호 작가 전시도 진품이고 재료가 크게 작용 하였음. 우리는 진품보다는 스토리를 전달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호 작가의 전시 방법 지향을 고려 필요

■브레인 스토밍

- 1.부동산 관련 광고, 진단지
- 2.다세대 · 다가구 중개 site(신축)/소규모거래 온라인 시장

- 3. Superblock - 이면도로 현상(도로사선 없어짐)
- 4. 아들 세대 → 김동진 - 마트로시카
- 5. 건축가 작품
 - 김인철(질 모서리)
 - 장영철(금호동 주택)
 - 신승수(봉천동 다세대 주택)
 - 김호민(Eleven Hills)
 - 존홍(송파 마이크로 하우스)
 - 박창현(A-Round)
 - 이은경(협동주택)
 - JYA 건축(시공+설계)
- 6. 유형
 - 연립주택 → 상업화(이태원)
 - 다세대·다가구 주택
 - 다중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고시원(준주거, 근생)
 - 홍대 365
 - 양재동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삼호물산)
 - 법의 변화
- 7. 판교/광교 비교
- 8. 인테리어 기반작업 → Grav(마포사무실)
- 10. 건축주 → 건물구입 → share office/share house(용적률/증축)
- 11. 허가방 → 불법 증축(날개)
- 12. 연희동 - COOM(신재일)

■ 회의 정리

- 1. 김승범 교수님 합류
- 2. 공간지에서 카탈로그 만드는 것으로 결정
- 3. 다른 전문분야의 사람을 섭외 고려
- 4. 다음 회의 일정
 - 날짜·시간 : 12월 10일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장 소 : 한양대학교 안기현 교수님 연구실